

다원주의 시대의 인문학 교육, 그 가능성의 중심 - 비판적 글읽기와 주체적 글쓰기 교육을 모색하며-

이 정 석*

차 례

- I. 인문학의 새로운 자기정립을 위하여
- II. 창의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읽기와 쓰기교육
- III. 비판적 글읽기 교육의 모형
- IV. 비판적 글읽기 교육의 실례
- V. 주체적 글쓰기 교육의 모색
- VI. 주체적 글쓰기 교육의 실례
- VII. 읽기와 쓰기 교육의 갱신을 기대하며

I. 인문학의 새로운 자기정립을 위하여

과연 인문학은 보편 타당한 실체성을 지니고 있는가? 인문학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문학이 인격의 도야와 교양의 함양을 추구해 나가는 학문임을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러한 인문학의 신화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제 인문학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해변의 모래 사장에 그려진 얼굴이 파도에 씻기듯이”¹⁾ 머지 않아 인간을 모든 존재의 척도로 삼는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예언이 결코 허세가 아님을 절감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당면한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막연히 인문학의 필요성을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Michel Foucault,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94, 440쪽.

역설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성찰하면서 달라진 역사적 환경 속에서도 존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인문학은 초월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려는 목적에 기초한 역사적 구성물일 뿐이다. 한때 국어²⁾·국사·국민윤리를 강조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은 국가와 민족에 투철한 근대적 국민의 양성을 위한 필수적 학문 분과로 여겨졌으며, 그 와중에 억압적 기능을 수행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인문학의 위기가 외적 요인뿐 아니라 내재적 요인에도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찌면 그동안 인문학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비판력을 상실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는 생태의 교란을 야기하며, 배타적 민족주의는 이질적 타자의 배제와 억압을 가져온다. 그런 위험들에 둔감한 채 인문학의 고매한 사명을 망신하는 동안 인문학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는 인문학적 이상보다도 시장의 경쟁력이 더 중시되고, 자민족 중심주의를 탈피해 다문화의 공존이 이야기되며,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인문학의 새로운 자기 정립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일찍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계몽적 이성이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되어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이성이 자기 자신조차도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비판적 이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³⁾ 하지만 유용성과 실용성을 가시적으로 보장

2) ‘코꾸고(國語)’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되는 ‘국어’는 제국주의적 체취가 담겨 있는 용어로, 현재 식민모국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臺灣)에서만 통용되고 있다(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101쪽).

하는 도구적 이성만을 맹종하는 부박한 이 무한질주의 시대는 여러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사유방식의 정립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는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인문학의 위축을 초래한 위기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인문학의 새로운 자기 정립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인문학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학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즉 인문학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핵심적 장이다.⁴⁾ 따라서 인문학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무비판적 주체를 생산하는 효과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맹점은 안고 있다. 그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인문학은 하나의 이념적 도그마로 변해 억압적 기능을 수행하고 만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인문학 본연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의 근원을 자기 자신조차 반성적으로 사유하는 '비판적 이성'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특정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사유체계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의 교육으로는 더 이상 인문학의 존재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⁵⁾ 인문학은 상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창의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대한 해결

3)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rx Horkheimer)의 『계몽의 변증법』(김유동·주경식·이상훈 옮김, 문예출판사, 1996)을 참조할 것.

4) 이성원,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현대비평과 이론』 8, 한신문화사, 1994 가을·겨울, 15쪽.

5) 그런 측면에서,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는 그 자체가 충분히 '실용적'이며, 한국의 인문학이 이런 사유능력을 키워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학부제 실시 이후에 학생들을 다 실용적인 분야로 뺏기고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홍성욱의 주장은 한번쯤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홍성욱의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 <http://future.dtribe.co.kr/>>).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국 혹은 자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데서 탈피하여 국제적 감각과 개방적 시야를 열어줌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이질적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문학은 끊임없이 자신의 입지점을 반성적으로 점검하면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도구적 이성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들은 결국 비판적 이성의 함양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비판적 이성을 함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II. 창의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읽기와 쓰기 교육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문학 교육의 근간은 읽기와 쓰기에 있다. 그러나 이제 읽기의 대상도 예전처럼 정전(正典)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의 학생들이 영상세대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영상매체들을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수준 높은 문자 텍스트는 문자 텍스트대로, 영상 텍스트는 영상 텍스트대로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목적은 학생들에게 좋은 텍스트와 나쁜 텍스트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과 보다 수준 높은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이 영상매체의 수동적 소비자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보인다고 영상자료를 틀어주고 마는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텍스트의 선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텍스트 선택의 기준은 물론 선택된 텍스트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효과를 유도하는지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강의자가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어야 제대로 학습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글읽기의 핵심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의 함양에 있다. 지금까지 읽기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일한 진리를 상정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이를 찾아 이해하도록 묵시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이다.⁶⁾ 이는 강의자의 권위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봉쇄함으로써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강의자는 텍스트의 심층적 이해에 다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소개하여, 학생들 스스로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독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문화적 충격(cultural

- 6) “1997년 겨울, 난 수능을 마치고 논술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논술이란 게 참 낯설었다. 어찌면 낯설었던 게 당연하지도 모르겠다. 논술이란 게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비판적 읽기와 쓰기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수업은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온 글을 하나 하나 분석해 주시고 학생들은 그걸 책에 옮겨 적는 식으로 진행된다. 마치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다 옳다는 듯이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글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무런 사고활동 없이 교실에서 습득한 단순한 지식이 실생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는 것은 억지가 아닐까?”

- 학생의 글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교육을 생각하면 거의가 주입식 교육이다. 한 가지 사실에는 반드시 한 가지 결론만 나와 있는 것이다. 대학교 때 수업도 마찬가지였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한 답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교수님들의 입맛에 맞는 답들만 적어” 놓는다. 그래야 학점을 잘 받기 때문이다.”

- 학생의 글 중에서

“내가 복학하고서 받은 인문학 교육을 떠올리려니까, 지금 계절학기 듣고 있는 국어수업을 제외하고 생각나는 것은 ‘성서의 이해’라는 신학과목뿐이다. 만약, 비 기독교인인 내가 ‘성서의 이해’ 시간에 비판적인 읽기와 쓰기를 하였다면, 난 학점을 포기해야 했을 거다. 1학년 ‘기독교의 이해’를 들으며 있는 힘껏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한 뒤에 받은 학점을 본 후 깨달은 사실이다.”

- 학생의 글 중에서

shock)'을 주어야 한다.) 충격은 흥미와 지적 자극을 촉발하며, 이는 다시 사유와 경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 있어서 전통과 공통감각은 그 집단 구성원 사이에 상호 의사소통의 기반이 됨은 물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유익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전통과 공통감각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교육은 통념에 안주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의 계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통감각은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자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⁸⁾ 노에는 “말할 줄 아는 도구”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말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보편적 상식이었지만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는 더 이상 참으로 인정되지 않듯이. 전통도 고정된 형태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가치들이 상호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 공동체가 그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부과한 선악의 기준이 되는 ‘도덕’과 공동체의 이익과 규범을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윤리’의 충돌.⁹⁾ 이 난처한 상황을 ‘바깥의 사유’를 통해 헤쳐나가며, 다원주의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집단의 통합과 질서의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도덕적 선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인류 전체의 공통감에 입각해 볼 때는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두 가치관이 상호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한 발 비껴나 양자의 근본적 입장이 무엇이고 상호 충돌점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조차도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다문화의 시대에 인문학이 떠맡아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것이다.

7) W. Kaufmann, 이남재·이홍수 역 『인문학의 미래』, 미리내, 1998, 105쪽.

8) 炳谷行人, 송태욱 옮김, 『윤리21』, 사회비평, 2001, 86쪽.

9) 위의 책, 58~62쪽 참조.

Ⅲ. 비판적 글읽기 교육의 모형

읽기와 쓰기는 상보적 혹은 순환적 행위다. 읽기는 쓰기에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며, 쓰기는 보다 깊은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당연히 제대로 된 읽기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제대로 된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비판적 읽기 교육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야만 비로소 비판적 쓰기 교육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의 양성도 읽기라는 극히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달라진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읽기 교육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부상한다. 어떻게 텍스트의 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 텍스트의 이해를 또 다른 텍스트의 이해로 확장하고 텍스트 상호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차원을 뛰어 넘어 독창적인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선입견이나 통념 같은 이데올로기적 장막을 걷어내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다원적인 사고를 함양할 것인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숙의를 거쳐 도출해내야 할 사안이지만, 새로운 읽기 교육의 방법론적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비판적 사고의 함양과 바깥의 사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읽기의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하되, 막연한 상위론적 목표의 언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텍스트 분석의 실례를 들어 구체적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모든 텍스트 읽기는 <서사의 이해 - 담론의 분석 - 비판적 해석>의 단계적 모델로 정식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들 행위는 단계적이라기보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겠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Homo narrans)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모든 텍스트는 그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구성물이다. 심지어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텍스트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이때의 이야기 즉 서사(narrative)는 “문학적 형식이나 구조라기보다는 하나의 인식론적 범주”¹⁰⁾이자 ‘의미 만들기’의 한 형식¹¹⁾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사는 세계 이해의 산물이자 초개인적인 역사의 억압 안에서 자아감각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인간 정신의 형성체다. 텍스트 읽기에서 서사가 문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서사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서사의 전달체로서의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현실적 맥락에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상 텍스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토록 유도한 후, 학생들 스스로 서사를 재구성해 보도록 해야 한다.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이후에는 텍스트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 내는가를 고찰하는 담론(discourse) 분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때 유의한 것은 담론이 단순히 텍스트를 짜나가는 언어의 표현적 국면을 지칭하는 폐쇄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담론은 단순히 언술이나 발화의 집합체에

10) William C. Dowling, *Jameson, Althusser, Marx: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Unconscious*, Ithaca ·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 95.

11) Donald E. Polkinghorn, *Narrative Knowing and Human Sc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 36 ; Calvin O. Schrag, 문정복 · 김영필 옮김, 『탈근대적 자아를 넘어서』, UUP, 1999, 42 쪽 재인용.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활성화되고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회적 맥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발화·문장·언술들의 집합체이다.¹²⁾ 따라서 담론 분석의 단계에서는 텍스트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의 고찰을 통해 텍스트의 핵심적 의미망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별 주체의 사유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효과를 생산하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추어진 서술전략은 물론 그 모순과 틈새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해석(hermeneutics)의 단계에서는 이야기의 구성과 담론 분석의 단계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현실적 기반과 텍스트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서사의 핵심적 의미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담론의 이면에 전제된 가치는 무엇이며, 텍스트가 어떤 현실적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이 단계에서 밝혀져야 한다.

IV. 비판적 글읽기 교육의 실례

위에서 진술한 <서사의 이해 - 담론의 분석 - 비판적 해석>의 모형에 입각해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보자. 먼저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짧은 분량의 텍스트로서 읽기와 쓰기 교육의 모델로 활용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읽기가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필수적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문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¹³⁾ 특히 아무리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12) Sara Mills, 김부용 옮김, 『담론』, 인간사랑, 2001, 25쪽.

13) “ ‘인문학은 입담뿐인 학문이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인문학생들은 말만 잘하고 대인관계만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생각만 해야 하는 나에게 인문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TV 드라마에서

글에서조차 주관적 가치가 내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보도기사를 선택하되, 상이한 가치와 현실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보다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두 신문 텍스트를 비교·고찰한다.

재벌 구조조정 변함없다

김 당선자, 6일 30대 그룹 대표와 회동 자발적 개혁 촉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쪽은 2일 김당선자의 재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사업교환(빅딜)도 이런 구조조정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당선자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계의 구조조정이 없다면 노동계 설득이 어렵고 노사정 타협이 안되면 새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자발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쪽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김 당선자에게 “기업 스스로 주력·핵심 부분을 설정해 경영역량을 집중하며 중복된 사업의 자율적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등 사업교환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¹⁴⁾

연예인들이 지껄이는 대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현실적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감성이 없는 기계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 학생의 글 중에서

14) 『한겨레신문』, 1998. 1. 7.

"대기업 구조조정 자발적으로 조용히"

金당선자 30대 그룹 회장과 6일 會同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 年內에 허용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는 2일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자발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길 바라며 정부측에서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돕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당선자는 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사정 타협이 성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다시 인정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金당선자는 6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민련의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와 박태준(朴泰俊)총재,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 총재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대그룹 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비상경제대책위 당선자측 위원회의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연내에 허용키로 결정했다.¹⁵⁾

위의 두 인용문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대기업 대표와 회동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6하원칙에 입각해 보도한 1998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의 머릿기사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어 급기야 IMF체제를 수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다. 이에 갓 대통령 선거를 치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노사정 협의회를 발족시키고 국가적 에너지를 총동원한다.

15) 『중앙일보』, 1998. 1. 7.

이때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주도하던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와 노사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리해고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위 두 보도기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당선자가 2일 대기업을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한 발언과 6일 대기업 대표와의 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이야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 『한겨레신문』이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중앙일보』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재벌 구조조정 변함없다”와 “대기업 구조조정 자발적으로 조용히”라는 엇갈린 제목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리고 담론 분석을 통해 좀더 세밀하게 텍스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이 “재벌”과 “대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일보』는 “대기업”과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에서 말하는 ‘재벌’은 각각의 개별 시장에서 독점 내지 과점적 지위를 갖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자본적 연결을 통하여 동일인에 집중된 소유와 지배 하에 있게 됨으로써, 총체적 경제력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기업집단을 일컫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벌(財閥)’은 문벌(門閥)·학벌(學閥)·군벌(軍閥) 따위의 단어들처럼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자아내는 단어다. 또 ‘대표’가 주식회사 법에 의거한 공식적 직함이라면, ‘회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단지 기업의 오너를 높여 부르는 비공식적 명칭일 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신문은 대기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재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 신문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명칭인 ‘대기업’과 비공식적 직위인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재벌이라는 단어에 담긴 부정적 어감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소유자를 최대한도로 예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한겨레신문』이 대기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중앙일보』가 우

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담론 분석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놀라운 점은 두 신문 모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은 “재계의 구조조정이 없다면 노동계 설득이 어렵고 노사정 타협이 안되면 새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김당선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계를 설득하여 노사정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곧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관철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논리는 <재계의 구조조정 → 노사정 타협 = 정리해고 법제화 → 국제 신인도 상승 → 외환 위기 극복>, 즉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재계의 구조조정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 타협이 가장 중요하”며 “노사정 타협이 성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다시 인정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로 인해 도출되는 결론은 『한겨레신문』과 정반대다. <노사정 타협 = 정리해고 법제화 → 국제적 신인도 상승 → 외환 위기 극복>의 논리, 즉 대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슬그머니 빼고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노동계가 정리해고 법제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묘한 왜곡을 통해 대기업의 책임은 회피한 채 노동계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왜 주관적 의견이라고는 개입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날 한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 텍스트는 상이하다 못해 정반대의 견해를 피력하게 되는가? 이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재적 분석을 현실적 맥락 안에서 재음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실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어떻게 텍스트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첨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테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진

보적 노선을 추구하는 신문이 『한겨레신문』이라든지, 『중앙일보』가 대기업의 친화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체적인 한국언론의 지형도를 그려주며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서사의 이해 - 담론의 분석 - 비판적 해석>의 읽기 모형에 근거해 어떻게 비판적 읽기 능력을 신장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읽기 교육의 핵심적 목적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엇에 유의해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원리들을 학생들이 숙지하고 스스로 비판적 읽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있다.¹⁶⁾ 이를 위해, 기초

-
- 16) 카우프만도 지적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하나의 고전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자가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그 책이 저술되었는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인지, 저자의 전체적인 지적 발전 과정 속에서 그 책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지, 오늘날에도 그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또 그 책이 다소 난해하다면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용어와 역사적 배경이라는 데 유의하여 반드시 핵심 용어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W. Kaufmann, 앞의 책, 113~140쪽 참조). 예를 들어 『계몽의 변증법』을 소개할 때, ‘계몽’, ‘도구적 이성’, ‘반성적 이성’ 등의 개념을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텍스트 이해는 틀림없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또 요즘의 학생들이 근래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무지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텍스트의 시대적 맥락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 황지우의 산문시 <5월 그 하루 무덤던 날>를 예로 들어 보자. 여기서 왜 경북고와 광주일고의 야구 대결이 숙명의 격돌인지, 왜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혼계조의 목소리가 반어적인 현실 비판으로 들리는지, 왜 시적 화자는 “배번 18번 선수”의 생환을 궁금해 하는지, “아마, 제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다 저런 사람들이었을 거야.”라는 말이 무엇을 지칭하지는, 등의 의문은 80년대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거의 판독 불가능하다.

적인 읽기 교육시간에는 대상 텍스트도 무거운 전문서적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문제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글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V. 주체적 글쓰기 교육의 모색

한편 현재 글쓰기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히 기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정작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단어를 결합하여 문장을 만들고, 문장들을 엮어서 문단을 조립하고, 문단과 문단을 연결지어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기능적인 행위가 아니다. 맞춤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거나 미문을 구사

드디어, 야구장 안으로 소주병이 날아 들어오고 난리다. /숫제 옷
 옷을 벗어 버린 두 청년은 114M 외야석에서 구장으로 뛰어내린
 다. / 라디오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혀를 차면서, 중계하고 혼계하
 고 경고한다. / “여기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연장입니다. 학생 야
 구에 성인들이 저런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스포츠 정
 신이란 게 뭐니까? 룰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아십니까? 네네, 그
 령습니다. 경기는 일단 중단됐습니다만, 아 지금 경비원들이 외
 야 쪽으로 가고 있군요.”(...중략...) / ‘慶北高-光州一高, 숙명의 격
 돌’이라고, 정말 대문짝만하게 ‘미다시’를 뽑은 ‘日刊스포츠’로 모
 자를 만들어李선배와 나는 하나씩 머리에 썼다. / 李선배와 나
 는 안타 하나에 딱 한 잔씩만 하기로 한 소주를 공평하게 다 마
 셔 버렸다. / “아마, 제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
 람들도 다 저런 사람들이었을 거야.” / 그는 웃고 있다. / 나도
 웃고 있다.(...중략...) / “광주일고는 저야 헤! 그게 포에틱 자스티
 스야.” / “POETIC JUSTICE요?” / “그래.” / 李선배는 나의 물지각
 과 무식이 재밌다는 듯이 씩 웃는다. / 그의 물기 젖은, 싹뿌라찌
 가짜 이빨에 햇빛이 반짝거렸다. / 나는 3루에서 홈으로 生還하
 지 못한, 배번 18번 선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황지우, <5월 그 하루 무덤던 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
 지성사, 1983.

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글쓰기 교육은 아니다.¹⁷⁾ 어떤 글이 좋다는 것은 그 글이 좋은 문체를 구사하고 있어서만도 아니며, 맞춤법에 부합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자신만의 감상이나 독창적 생각이 없는 도구적 글쓰기는 단지 베끼기와 흉내내기에 불과할 뿐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비판적 안목을 갖고 주체적 입장에서 사물과 세계의 본질을 성찰한 후 자신의 경험과 창의적인 사고를 유려한 문장에 실어 날라야 비로소 진정한 좋은 글이 되는 것이다.

이제 글쓰기 교육은 ‘어떻게’에 해당하는 기술적 측면을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데 치중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왜’ 써야 하는가와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확장하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글쓰기 교육이 요구된다. 왜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만 주어지면 일단 부담을 느끼고 곤혹스러워 하는가?¹⁸⁾ 쓰기는 자신의 감상이나

17) 미문 교육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으로는 조동일의 발언을 들 수 있다.

“한문의 세계와 멀어지고 일체의 신교육만 받은 세대가 등장하고, 문필자가 작문을 주도하겠다고 하자 혼란이 생겼다. 일본 취향의 감각적인 미문을 받아들여서 모범을 삼는 이태준의 『문장강화』 같은 악서가 유행해, 글쓰기가 망가졌다. 근래에는 수필이나 감상문 쓰는 것이 훌륭한 작문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풍조를 시정하고, 논리에 맞는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작문법을 받아들이고 특히 논문작업을 배우는 데 힘써, 대학에서 하는 작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4, 54쪽).

18) “초등학교시절 글짓기 시간이 되면 우리 반 대다수의 아이들은 멍하니 앉아서 고민을 하거나 글쓰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쳤다. 선생님께서 정해진 원고지 분량을 맞춰서 써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하기 싫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글 쓰는 숙제가 있을 때면 글을 쓰기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일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된다. 고등학교 진학해서 입시제도 때문에 논술을 많이 썼지만 진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썼다. 이러한 모습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모습이 나를 포함한 일부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견해를 글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특별한 느낌이나 견해가 없으면 아예 글쓰기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인문계열 학과의 레포트와 시험에는 어떤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기술하라는 식의 과제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처럼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라는 과제가 주어질 경우, 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능력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과제의 의도와 글쓰기의 목적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 비판적 안목을 갖고 해석·소화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한 형식에 담아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 종합적 사고의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글쓰기 교육은 그에 관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단지 기술적 측면에 관한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맞춤법 및 띄어쓰기가 어떠하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채 무엇인가를 써 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 학생의 글 중에서

“난 글쓰기를 잘 하지 못한다. 글을 쓰려고만 하면 머릿속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 동국대 입학에 위해 논술 시험을 본 적이 있다. 주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시험 후의 참담함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난 열심히 글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서론을 쓴 후부터 머리 속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 글로 옮길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다 지났고 난 결국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글에는 재주가 없는 것 같다.”

- 학생의 글 중에서

“이 ‘교과서식 읽기’가 교과서에만 국한된다면 별달리 문제 될 것이 없을 것도 같다. 하지만 12년 동안 훈련받아온 읽기 방식은 무엇이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대학에 들어왔을 때 ‘논술하시오’라고 하는 시험 문제들은 정말 난감했다. 배운 내용에 감히 내 생각을 집어넣다니! 내겐 교과서의 권위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

- 학생의 글 중에서

서론·본론·결론 부분은 각각 무슨 내용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지, 논증·서사·설명·묘사와 비유적 표현 같은 기법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식이다. 물론 이것들이 글쓰기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체화하여 글쓰기에 활용하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특히 글쓰기 교육에서 유의할 점은 주어진 과제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거나 자기 나름의 특별한 감흥이나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본론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멋진 수사적 표현을 구사하기는 고사하고, 서론에서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글쓰기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정작 결과물에서는 판에 박힌 내용으로 일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채 무엇인가를 써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한 학생의 고민 어린 고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학생들의 글쓰기에 보여지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시각의 실종은 곧 글쓰기의 주체의 실종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왜’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동기 유발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삶과 밀착된 글쓰기를 행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글쓰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에서 겪은 사소한 일에 대한 단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글쓰기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 나가는 중에 쓰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¹⁹⁾ 강한 동기를 가

19) “그러나 글을 쓰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뭔가 좀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가다 보니, 얽히고

지고 쓴 글은 그만큼 글쓴이의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시각이 강하게 부각되기 마련이다. 그 와중에 불거져 나온 격한 감정과 비논리적인 진술들은 글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에 관한 간단한 지적과 설명으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사고의 자유로움을 주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의자의 잣대나 기존의 특정한 가치체계를 강요하면 학생들의 표현 욕구가 현저히 감퇴될 수 있기 때문이다.

VI. 주체적 글쓰기 교육의 실례

비판적 글읽기는 비판적 글쓰기, 즉 주체적 글쓰기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비판적 글읽기가 자아와 자아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재인식하는 과정이라면, 주체적 글쓰기는 비판적 글읽기를 통해 얻은 성찰을 소통 가능한 형태로 의미화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자아와 세계의 재인식은 비판적 읽기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주체적 글쓰기 교육은 비판적 글읽기 교육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비판적 글읽기 교육과 주체적 글쓰기 교육이 공히 학생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보다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글을 읽고 쓰는 행위가 자기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상적 목표는 읽기와 쓰기 작업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강하게 유발하여, 그들 자신이 그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목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

설키어 도저히 그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만 같던 나의 머릿속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글을 쓰면 쓸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 학생의 글 중에서

는 글쓰기 과제의 실례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사회와 시대를 지배하는 평균적인 존재론적-가치론적 신념”²⁰⁾이라고 할 수 있는 통념에 사로잡혀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 통념적 의식은 무의식적 층위에서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며, 의식의 표층에서 반성적 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 이 통념을 그 바깥에서 비판적으로 사유할 때 새로운 삶의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새로운 인식을 주체적 입장에서 글로 풀어 쓸 때 자신의 삶이 새롭게 확장됨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고 들어 너무나도 친숙한 동화를 예로 들어 보자.

“옛날 옛날에 아리따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무서운 용이 공주를 납치하지만, 용감한 왕자가 나타나 공주를 구출하고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동화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이 동화는 통념에 부합하는 혹은 통념을 생산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적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하나도 이상스러운 것이 없는 이 동화가 남성을 능동적 주체로 설정하는 대신 여성을 추구의 대상으로 둠으로써 매우 의미심장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이 이야기는 <남성 = 능동성 : 여성 = 수동성>의 이미지를 고착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의 현실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은 이 동화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시 쓴 인도의 여류작가 수니티 남조시(Suniti Namjoshi)의 동화와 비교해 읽으면 명료하게 드러난다.

지혜로운 공주가 왕자에게 “당신이 용의 미끼가 되세요. 내가 용과 싸울 테니.” 하고 말하자, 왕자는 “나는 본래 용과 싸우도록 키워졌소, 게다가 나는 힘이 세고

20) 이정우, 『시불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9, 188쪽.

키가 크며 남자답다오, 당연히 내가 당신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일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오.” 하고 응대한다. 그러나 왕자는 용에게 패하고, 공주를 잡아먹으려는 용에게 공주는 다시 한번 제안한다. “자, 이제 당신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저 왕자는 공주가 되고요.” 공주의 제안대로 셋은 옷을 바꾸어 입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싸우는 건가?” 용의 질문에 공주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왕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안전할 테니까.”²¹⁾

새롭게 쓰여진 이 동화는 당연시되던 통념을 비판적 숙고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충분히 학생들의 흥미를 끈다. 동시에 그것이 기존의 통념을 넘어 새로운 인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를 읽는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체험이 된다.²²⁾ 여학생은 여학생 나름대로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삶의 경험을 떠올릴 것이고, 남학생도 그 나름대로 남성 우위의 사고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읽기의 체험은 주체적 글쓰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자각에서 출발해서 자기 목소리를 찾고, 이를 글로 옮기는 주체적 글쓰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학생들이 자신

21) Suniti Namjoshi, 이옥순 역, 『신데렐라가 집을 나간 이유』, 책세상, 1997.

22) 이 동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이갈리아의 딸들』(Gerd Brantenberg, 노옥재 외 옮김, 황금가지, 1996)이나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Iring Fetscher, 이진우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1),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 1·2(桐生操, 이정환 역, 서울문화사, 1999) 등의 텍스트를 스스로 찾아 읽게 하는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과제로는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는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거나, 다른 동화를 대상으로 서사구조를 바꿔 써 보게 하는 일도 괜찮고, 대상을 확장하여 TV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 텍스트들이 어떻게 왜곡된 성 정체성을 생산하는가에 관한 분석적 레포트를 쓰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글쓰기가 통념에 기대어 무비판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게 한다면 최상의 교육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근원적 기반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토록 한 후, 이를 일상적 삶의 문제와 연관시켜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쓰게 하는 글쓰기 과제도 좋다. 너무나 자명하고 보편 타당한 진실이라 믿고 있는 삶의 준거틀을 비판적으로 숙고토록 하는 교육은, 다원주의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타자들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의 성을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 존재하는 불변적 본능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성의 불변적 고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를 둘러싼 규범은 사회 문화적 관계망의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1) 가족 전체가 침대 하나나 두 개에 끼여 들어가 추위를 막기 위하여 가족들에 둘러싸인 채 잠을 잤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그 부모의 성행위를 구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린이가 순진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린이 시절이 특별한 양식의 옷이나 태도에 의해 사춘기, 청년기, 성인과 구분되는 삶의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걸을 수 있을 때부터 부모의 옆에서 일을 하였고 10대에 도달하자마자

농가의 일손이나 하인이나 도제로서 성인의 노동력에
합세하였다.²³⁾

2)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이도령을 살펴보니,
이 세상의 호걸이요, 진세(塵世)의 기남자였다. 이마가
높았으니 소년공명할 것이요, 이마와 턱과 코와 좌우
의 광대가 조화를 이루었으니 보국충신될 것이니, 마
음에 흠모하여 아미를 숙이고 무릎을 여미며 단정히
앉을 뿐이었다.

이도령이 입을 열어,

“성현도 성이 같으면 장가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성은 성씨웁고 나이는 열 여섯이로소이다.”

이도령의 거동을 보라.

“허허 그 말 반갑구나. 네 나이 들어보니 나와 동갑
이팔이요, 성씨를 들어보니 나와 천정연분 분명하고나.
이성지합(李成之合) 좋은 연분 평생 동락하여 보자, 너
의 부모 다 계시냐?”²⁴⁾

1)의 인용문은 어린이는 순진 무구한 존재이기에 어른의 세계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우리의 통념에 어긋나
는 진술을 담고 있다.²⁵⁾ “어린것은 숫자로 계산되지도 않았다”는 몰
리에르(Molière)의 말이나, 어릴 때 죽은 자기 자식의 수도 잘 기억

23) Robert Darnton,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 프랑스 문화사 속
의 다른 이야기들』, 문학과 지성사, 1996, 50쪽.

24) 『민제 춘향전』, 중앙대출판부, 1994, 25쪽.

25)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Phillppe
Ariès, 문지영 옮김, 새물결, 2003)을 참조할 것.

못하며 별로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는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의 진술은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의 개념은 근대 서양의 발명품일 뿐이며,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용문의 진술들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 속에서 살았다. 근대 이전만 해도 어린이는 ‘작은 어른’으로 대우받았으며, 이는 7세면 벌써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남을 인정하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경구를 통해 역설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으로 만나 사랑을 약속하는 『춘향전』의 한 대목인 2)의 인용문은 오늘날의 ‘청소년’이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나를 잘 보여준다. 사랑의 대명사로까지 불리는 성춘향과 이도령의 나이가 16세로 상정된 것은, 그만큼 그때가 사랑과 결혼을 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연령대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팔청춘(二八靑春)’이라는 말 그대로, 10대는 가장 혈기왕성하고 이성에 대한 욕망에 가장 강하게 이끌리는 시기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미성년자(未成年者)’로 취급하며 그들의 성을 억압하고 부정하려드는 근대의 성적 배치는 생각보다 그리 보편 타당한 진리가 아니다.

사실 성을 시대와 문화에 따른 상대적 구성물로 보는 시각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률적 성 규범만을 들어오던 학생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비상한 관심을 자아내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고전을 바라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고리타분하게만 인식되던 고전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요즘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해 논하는 작문을 시켜보더라도, 구체적인 삶의 질감이 사라진 도덕적 당위론에 입각한 재미없는 모범답안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갓 미성년을 벗어난 대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성적 자극물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금욕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의 딜레마를 이해도 하며, 자

신들의 체험을 섞어 자신만의 언어로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를 진지하게 글로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지반이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진리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다문화 시대 지구촌을 살아가는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VII. 읽기와 쓰기 교육의 갱신을 기대하며

아무리 훌륭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려하더라도 배우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즉 가르치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우월한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배우는 측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배우는 측이 무슨 생각을 하든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약한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²⁶⁾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이제 인문학은 사회를 절타하는 계몽적 위치에서 내려앉아,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인문학의 새로운 자기 변신은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문학을 외면하게 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문학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문도 없다. 인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읽기와 쓰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인문학이 실생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 확실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26) 炳谷行人, 송태욱 옮김, 『탐구』 1, 1998, 11쪽.

있다. 글을 읽고 쓰는 작업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안목을 키워주는 인문학의 첫 단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읽기와 쓰기 교육은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능성의 배양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읽기와 쓰기 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적 자극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기는커녕, 마지못해 하는 거추장스럽고 곤혹스런 의무로 느껴지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기계적인 읽기와 쓰기 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롭고 참신한 사고를 가두어 두는 장벽에 불과하다. 정형화된 지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쓰는 행위야말로 학생들에게 인문학에 흥미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고 격식에 맞는 글을 작성하는 일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시키면 된다. 글읽기와 글쓰기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기쁨을 느끼면서,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쓰며,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동인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학의 자기 갱신은 인문학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2003년도 여름 계절학기 <국어> 레포트.
『중앙일보』, 1998. 1. 7.
『한겨레신문』, 1998. 1. 7.
황지우, <5월 그 하루 무뎠던 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 지성사, 1983.
이성원,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현대비평과 이론』 8, 한신문화사, 1994 가을·겨울.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9.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4.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홍성욱,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홍성욱의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 <http://future.dtribe.co.kr/>>.
Calvin O. Schrag, 문정복·김영필 옮김, 『탈근대적 자아를 넘어서』, UUP, 1999.
Gerd Brantenberg, 노옥재 외 옮김, 『이갈리아의 딸들』, 황금가지, 1996.
Iring Fetscher, 이진우 옮김,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 철학과 현실사, 1991.
Michel Foucault,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94.
Phillppe Ariés,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Robert Darnton,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 프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문학과 지성사, 1996.
Sara Mills, 김부용 옮김, 『담론』, 인간사랑, 2001.
Suniti Namjoshi, 이옥순 역, 『신데렐라가 집을 나간 이유』, 책세상, 1997.
Theodor W. Adorno·Marx Horkheimer, 김유동·주경식·이상훈 옮김,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6.
W. Kaufmann, 이남재·이홍수 역 『인문학의 미래』, 미리내, 1998.
William C. Dowling, Jameson, Althusser, Marx: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Unconscious, Ithaca ·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桐生操, 이정환 역,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 1·2, 서울문화사, 1999.

柄谷行人, 송태욱 옮김, 『윤리21』, 사회비평, 2001.

———, 송태욱 옮김, 『탐구』 1, 1998.

【Abstract】

For the education of critical reading
and subjective writing

Lee, Joung-Suk

At the period of the cultural study crisis, we don't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cultural study, but it's time to make a concrete alternative in order to exist in the changed historical circumstances, reflecting the existential righteousness of the cultural study. Therefore, I will make the cultural study class model which develops the critical reason and creative thought and can cause the intellectual stimulus and interest on the basis of the reading and the writing. I applied this by giving a concrete example. The key point of reading lies in developing the critical and creative thought ability.

The biggest problem of the reading education is to force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unique truth passively. Therefore, the instructor should guide the students so that they can read the books creatively with the original consciousness of question by introducing the various approaching ways of understanding the text.

We can explain the text reading by forming with the stage model of "the understanding of description - the analysis of discussion - the critical interpretation". For it, above all, the selected text should give the students cultural shock because shock can cause the interest and the intellectual stimulus and expand into the thinking and the experience again.

On the other hand, so far the problem of the reading lies in taking the focus only on the cultivation of skill in opposition to the phase of cultural study. So the reading education doesn't give the students the intellectual stimulus and pleasure, but acts as the

main reason which makes them feel as the burdensome obligation. Therefore, when we teach the writing, we let the students read and write freely irrespective for the typical knowledge and need to induce the voluntary interes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Eventually, the reading and the writing education of the future must make the students feel the intellectual pleasure and reflect themselves and the world. Also we should lead our life toward the desirable direction through the reading and the writing education.

Key words : Critical reading, Subjective writing, Cultural shock
Critical reason, The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